

청년기 자녀의 갈등에 관한 연구

-사회극을 통한 방법으로-

A Study on the conflict of Children in Adolescence

-by Socio drama-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李正淑

김유광 신경정신과

원장 金裕光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徐炳淑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Assistant Prof.: Jung Sook, Lee

Dr. Kim's Neuropsychiatric Clinic

Doctor: Yu Kwang, Kim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Prof.: Byong Sook, Seo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논의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leven junior-college students in Seoul who are interested in a drama volunteered to take part in the sociodrama. Their ages range between 21 and 35-all not married. The drama was performed 14 tiems. In the sociodrama test the conflicts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and between siblings appear to be the factors of uneasiness and trouble. Parents' nrgative attitudes and the conflicts between siblings in childhood are the factors of the conflicts of the children in adolescence.

This study is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two points.

1. Parents' negative attitude toward their children in childhood can be the cause of the conflicts of their children in adolescence.
2. The sociodrama is a very effective way to find the trouble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and to search for the solution to it.

1. 서론

1. 문제의 제기

청년들은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보호 아래서 유년기, 아동기, 사춘기를 거쳐 한 사람의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부모와의 관계는 청년기의 사회화 및 심리적인 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 또는 그들 자신이 부모를 어떻게 대했는가 등이 무의식 중에 청년들에게 전달되어 장차 대인관계의 행동경향을 규정하게 된다. 청년기에는 정신적 자주, 자율로서의 요구와 사회적 독립으로서의 요구가 나타나게 되어 자아의식이 강하므로 심리적 이유를 더욱 증진시켜주는 반면 가족 중에서도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 즉 부모에 대한 불만과 반항이 크게 나타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자아개념 형성, 대인관계, 성역할, 사회적 행동, 범죄, 비행, 신경증, 공격성, 의존성, 정신증적 경향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으로 인해 나타난다는 결과가 있다(박성연, 1989; 김경신, 1987; 김광일, 1983; 이인숙, 1987; 한광희, 1986; 이근후, 1985; 홍기선, 1984; 김양희, 1993). 또한 건강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경증, 정신증을 연구한(이중훈, 1985; 서혜수, 1985) 결과 신경증상을 보이는 비율은 11.1%로 나타났고, 정신증적 분포는 2.8%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한 내용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불만(28%), 어머니와의 갈등(15.9%), 형제 간의 갈등(13.6%) 순으로 부모와의 갈등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십대들의 쪽지, 1994).

청소년기는 미숙한 인격발달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특히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 가족관계, 학교경험, 사회 경제적 여건 등에 민감하고 이에 수반되는 스

트레스가 정신질환의 발병에 관련되고 있다는 연구(홍강의, 1982; 이길홍, 1983; 박중원, 1982; 이인숙, 1988)에서 살펴보면 정신질환의 원인은 가족문제 특히, 부모와의 불화,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갈등의 유발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규련(1996)은 청소년 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서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을 여러 측면으로 연구하고 가족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가족을 위한 가족상담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신의학 영역에서는 환자 자신들의 상태를 알게 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정신치료극, 사회극, 집단 정신치료를 이용하여(김유광, 1986; 박진익, 1989; 김진홍, 1991), 환자자신을 알게 하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홍기선, 1984; 이충순, 1984; 성금영, 1983; 이은순, 1990; 이정숙, 1995)에서 사회극은 공격성향을 감소시키고, 대인관계의 잘못된 습관을 변경시키며 자기를 개방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의학 영역에서 치료기법으로 사용하는 사회극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가족과의 갈등, 그 중에서도 부모나 형제관계에서 어떠한 요인이 갈등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가를 파악하고, 사회극이 이들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청년기 자녀들의 갈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극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연구하였다.

첫째, 청년기 자녀의 잠재된 갈등이 사회극 실시로 인하여 어떻게 표출되며 그 변화는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알아본다.

둘째, 사회극 실시후 청년기 자녀의 자아 및 타인

에 대한 태도변화는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알아본다.

셋째, 사회극 실시후 비디오로 촬영한 자기모습을 보고 자신에 대한 통찰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극의 개념

사회극은 1921년 모레노에 의해 창시된 후 환자 및 일반사람, 대학생 청소년들의 문제를 다루거나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극은 자신의 태도와 느낌의 정당성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으려 함에 따라 집단 내에서의 상호느낌과 서로의 관계를 탐구하고 조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모레노, 1960; 김해열, 1991). 사회극은 주인공의 갈등을 명료화시키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와 억압되어 왔던 감정을 분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그러한 자신의 여러 모습을 내적으로 통합하는 기회를 줄 수 있다(Blatner, 1973; Kellerman, 1984).

가정환경, 부모의 양육형태, 형제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행동에 대한 실제 치료방법은 정신분석학, 유희치료, 행동수정, 역할놀이, 사회극, 정신치료극 등이 있는데, 사회극(social drama)은 집단내에서 한 사람이 선택이 되지만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을 대표하여 집단내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다.

사회극은 개인적 카타르시스보다 단체적 카타르시스를 회구하고, 집단의 역할을 전형화시키면서 일개인의 자발성은 활발하게 되고 인간사이에 화해를 가져오게 하는 원천이 될 뿐 아니라(김희경, 1990), 주인공에게는 개인 정신치료의 성격을 띠며 동시에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사회극의 개념을 좀더 명료화하기 위하여 정신치료극을 설명하면 정신치료극(psychodrama)은 집단에서 한 개인을 선택하여 그 사람의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이고 정신치료극은 연출가와 관객자들이 각 개인의 개인적인 문제에 관심

을 기울이는 것으로 설사 정신치료극이 집단적 접근일 경우에도 개인중심적인 접근과 치료가 행해지고 집단적 접근은 단지 개인의 치료적 효과와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 사용된다.

정신치료극 방법은 학교에서 역할연기나 사회극 형식으로 적용이 되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진행할 수 있다(김유광, 1986).

첫째, 미리 준비된 대본없이 학생들이 즉흥적으로 극에 참여한다. 둘째, 부모자식간의 갈등과 요즘의 관심이 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 및 공동체의 중대한 국면을 학급, 전학교 집단에서 함께 다룰 수 있다. 셋째, 학습불능의 아동들의 자기좌절, 열등의식, 행위문제, 빈약한 자존심 등과 성문제 등을 다룬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접근이 집단 내에서는 집단 요소에 대한 갈등이 포함되고 이해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생겨나 점차 집단적 요소에 중점을 두는 특수한 극적형태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이 사회극이 생기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Moreno, 1972; 홍기선, 1991).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둘째에 해당하는 특히 부모, 자식간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하여 청년의 갈등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보고자 한다.

2. 사회극의 효과

사회극은 집단요법에 의하여 아동, 양친 및 교직원의 역할행동의 변용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사회극을 통하여 역할연기를 하도록 연출하고 있다. 사회극을 통하여 교사와 아동의 상호관계가 전형적인 것이 되거나 그 반대로 창조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상황 그 자체를 반복해서 연기해 본다는 것은 일상의 교육활동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행동의 변용을 촉진시키고 현저한 효과를 거둘 경우가 많다. 동료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특정한 역할에 투입시켜 연기하거나 역할교대를 함으로서 자기자신을 자율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태도를 배양할 수가 있다. 또한 동료들과의 상호이해나 신뢰감을 깊게 하고 바람직한 동료의식을 가지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회극을 교육적인 면에서 이용하고자 할 때에 대

상은 4가지가 있는데, (1) 집단 성원 전체를 교육 학급집단의 과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극을 실시하는 경우와 (2) 특정한 개인에 국한 시키는 경우, 그 대상은 친구, 부모, 선생님과의 관계가 되고 (3) 교직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4) 교육실습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사회극을 이용할 경우 효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김유광, 1984).

첫째, 내면세계를 밝혀 자신의 대인관계 양식의 인식 그리고 책임감과 자신을 갖게 된다. 둘째, 대인관계에서의 역할행동을 변용하여 자신을 명백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갖도록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감을 갖게 한다. 셋째, 가치관과 인생철학, 자신의 인생의 중요성을 알게된다. 넷째, 자발성을 통해 명랑성, 즉흥성 및 예술과 유머에 대한 감각이 발달되고 자신을 자율적으로 통속할 수 있다. 다섯째, 감각 작성기법을 통해 신체동작의 울동감, 균형감을 알게 된다. 여섯째, 상상을 통해 자신의 꿈과 그 상징 및 직관 등 개인적 성장의 기술을 배우게 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이론을 종합하면 사회극은 하나의 과학으로써 형태를 갖추고 학교, 직장, 그리고 감정면에 있어서 자발성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역할 및 성격적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학 측면에서 사회극을 통해 청년의 갈등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파악하고자 사회극을 실시하였다.

신경정신의학영역에서 환자들의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신치료극, 집단정신치료, 개인면담, 사회극을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데 환자 자신이 자신을 알게 하여 치료의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홍, 1991; 이충순, 1984; 임계원, 1981; 김유광, 1986; 박진익, 1988; 김창원, 1988; Mannen, 1973; Weiner, 1974 등).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연구(홍기선, 1984; 이충순, 1984; 성금영, 1983; 이은순, 1990, 이정숙 1995)에서는 정신치료극을 통해서 공격성향 감소와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자기를 이해할 수 있고 잘못된 습관을 변경시키고 자기를 개방시키는 기회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청년들의 문제점은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자아개념, 비행, 정신증 그리고 신경증의 요인이 됨을 볼 수 있고, 신경증, 정신증의 환자와 대학생들에게 정신치료극, 사회극을 이용해서 자기를 알게하고 타인들을 이해하게 하여 보다 나은 대인관계를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3. 사회극의 구성요소

(1) 주인공: 사회극의 주인공으로서 그 자신의 인생상황을 극으로 묘사하게 된다.

(2) 감독: 극에 참여하고 있는 그룹전체에게 그날 무대에서 이루어지게 될 상황, 목적, 시간의 제한 등을 설명해주며 주인공이 자발적으로 무대하단에 등장하여 점차 상단으로 올라와서 연기할 수 있게 유도해준다.

(3) 보조자아(Auxiliary Ego): 보조자아는 주인공의 상대역이고 동시에 주인공을 리드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4) 빈의자(Auxiliary Chair): 주인공의 감정을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5) 다중자아(Multiple Double): 2명 이상이 각각 주인공의 정신영역의 일부분이나 특별한 역할을 하여 주인공 정신의 한 복합체나 부분들을 역할 해내는 것이다.

(6) 마술가게(Magic Shop): 감독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무대 위에 있는 진열대에 훌륭한 모든 것들이 있다고 상상을 시킨 후 누구든지 원한다면 가게에 들어와서 물건을 살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점원은 잘 훈련된 보조자아 이거나 감독자신이거나 환자일 수도 있다. 고객 즉 주인공이 무대위로 올라온다면 정말로 그가 바라는 물건을 물어보고 토의를 해가며 그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료화시킨다. 그후 가격의 협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대의 물건이나 상품은 주인공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즉 그의 생애나 성격에서의 특성이나 일면을 물물교환 하거나 살 수 있다는 것을 점원이 설명한다.

(7) 요람장면(The Crib Scene): 주인공 자신의 의존성 및 욕구를 경험하는데 사용된다. 도 주인공 외에 전 관객에게 사용할 수도 있다. 즉 참여자가 아

기 침대 속의 어린애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마루에 눕게 한 후에 감독이 유모가 되어 돌아다니며 쓰다듬거나 가상의 이불을 덮어주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다시 깨었다가 자는 것을 반복하므로써 다시 성인이 되었을 때 어린애가 되었던 상황을 설명하게 한다.

(8) 유도된 상황(Guided Fantasy Double): 감독이 집단구성원들에게 사물이나 동물이나 옛날 애기의 인물들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그것의 과거 미래에 대해 생각하라고 지시하여 그것에 관해 말하게 하는 것이다.

(9) 보편성: 주인공이 다른 집단구성원들과 비슷한 문제와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따라서 자신만이 독특하다는 생각이 주어진다.

(10) 카타르시스: 주인공이 이제까지는 표현이 어렵거나 불가능했던 현재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의 느낌을 발산하므로써 편안함을 얻는다.

(11) 지금여기(Here and now): 모든 행동은 현재 이곳에서 보고 관찰하고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바로 이순간의 상황이 더욱 중요시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은 사회극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내 모전문대학 유아교육과 학생 11명이었으며 4개월간 14회를 실시하였고, 사회극에서 주인공으로 참여한 횟수는 각각 1~2회이고 보조자아로서 참여한 횟수는 5~10회가 된다. 각 사례별로 사회극에 참가한 횟수는 다음과 같다. 사례1:10회, 사례2:13회, 사례3:9회, 사례4:9회, 사례5:10회, 사례6:9회, 사례7:13회, 사례8:10회, 사례9:10회, 사례10:6회, 사례11:6회이다.

2. 연구방법

사회극, AO, AS검사, 비디오를 통한 설문조사 등 3가지 방법을 적용 실시하였다.

1) 사회극

사회극은 국립서울정신병원 사이코드라마 극장에서 실시되었다. 극의 진행은 처음 2회는 자발성의 촉진을 위해 유도된 환상(Guided Fantasy), 요람장면(Crib of Scene)등의 위명업을 하였고 이후에는 마술가계 기법(Magic Shop Technique)과 빈의자 기법(Auxiliary Chair)등을 사용하고 토론에 의해 매회의 주인공의 결정되었다. 그외에 배경으로는 음악(Beautiful Day중 몇곡, Impending Death of Maria, Camel의 Nude, Vangelis Heaven and Hell 등)과 특수조명이 이용되었다. 사회극의 감독은 의사 K씨가 하였고 보조자아는 의사 H씨가 참석자가 참여하였다. 사회극의 1회 평균 소요 시간은 50분에서 60분이다.

2) AO, AS 검사

사회극 실시 전후 참여를 희망한 학생에게 Gibson (1955)이 MMPI (Minnesota Multiphase Personality Inventory)에서 추출한 자신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Self, 이하 AS라 약칭한다)와 타인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s Others, 이하 AO라 약칭한다)의 척도에 의하여 실시하였다. 제 1차 검사는 사회극 실시 전에 하고, 제 2차 검사는 사회극 실시 후에 하였다. AO와 AS검사는 개인별로 실시하였으며, 문항별로 '그렇다'에는 1점 '아니다'에는 0점을 주어서 이를 점수로 환산하여, 이 합계를 개인의 점수로 하여 1차와 2차의 점수차를 계산하였으며 집단간 차이를 보기위해 t검증을 하였다.

3) 절차

사회극을 진행하는 동안 비디오로 촬영하였으며 사용된 기기는 비디오 '소니 HI8 핸드캠'이었다. 피험자는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 비디오를 촬영한 이유는 사회극 실시 후 다시 자신의 모습을 보게하기 위함이다.

4) 설문조사

사회극이 끝난 4개월 후에 피험자에게 촬영된 사회극의 비디오를 보고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는 자신의 문제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는가, 사회극에

서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가를 알기위하여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토대로 고안한 것이다.

설문내용은 자기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 보편성, 카타르시스 지침의 내용과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미정, 1986)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IV. 결과 및 논의

1. 사회극을 통해 본 청년들의 갈등

청년들의 사회극 실시후 잠재되어 있는 갈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극 내용과 함께 설문지 등을 종합하여 평가를 하였다.

1) 각 사례의 결과

사례 1 : 10회 참가

미술가계기법(원하는 것-향기로운 사람, 놓고 간 것-시기, 질투, 미움)을 사용하였다. 주인공으로 1회 참석하고, 보조자아로 7회 참석하였다. 가정생활을 하는 장면에서는 무관심하고 무뚝뚝한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갈구하였고,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였으며, 동생과의 갈등과, 경쟁적 관계 등이 탐색되었으며 가정의 불만을 종교적으로 채우려는 경향 등이 나타났다.

사례 2 : 13회 참가

미술가계기법(원하는 것-사랑, 놓고 간 것-시기, 질투, 미움)을 사용하였다. 주인공으로 1회 참석, 보조자아로 9회 참석하였다. 주인공의 아랫집에 사는 집사님을 미워하고 질투하였다. 자신에게는 엄격한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므로 이에 대해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으며 사람들에게 대한 질투 및 대인관계 장애, 친구에 대한 독점욕, 갈등 등이 노출되었다.

사례 3 : 9회 참가

미술가계기법(원하는 것-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놓고 간 것-질투하는 마음)을 사용하였다. 주인공으로 1회 참석, 보조자아로 7회 참석하였다. 고등학교친구와의 갈등문제를 다루었고, 지나칠 정도로 친구에 집착하고 질투를 나타내었다. 한 친구의 모든 것을 소

유하려 하며 이로 인해 친구관계에 장애가 있고 서먹서먹해지는 자신을 표현하였다. 전반적인 대인관계에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다.

사례 4 : 9회 참가

빈 의자기법의 주인공으로 1회 참석하고, 보조자아로 5회 참석하였다. 교회 안에서의 집사님, 목사님과 대인관계의 갈등이 탐색되었으며, 우유부단함과 자기 자신을 표현 못하는 점이 있었다. 원리원칙대로 생활하려는 경직된 태도 등이 노출되고 신경증적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극심한 의존성, 수동성, 감정표현의 억제 등의 갈등이 탐색됨을 볼 수 있었다.

사례 5 : 10회 참가

미술가계기법(원하는 것-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놓고 간 것-동생을 갖다버리고 싶은 생각)을 사용하였다. 주인공으로 2회 참석하고, 보조자아로 7회 참석하였다. 첫번째 극에서는 동생의 출생장면과 아버지의 사랑을 두고 동생과 경쟁하는 어릴 때의 장면을 통해 동생에 대한 미움과 편애하는 아버지에 대한 양가감정, 원망, 억압된 분노 등이 표현되었다.

극이 끝난 후 자신이 왜 동생을 미워하는가를 알게 되었으며 동생과의 현실관계가 훨씬 쉬워졌다고 보고하였다.

사례 6 : 9회 참가

미술가계기법(원하는 것-사랑하는 마음, 놓고 간 것-자신이 없는 모습)주인공으로 1회 참석, 보조자아로 5회 참석하였고, 자신을 폭로하는데 어려움을 표현하여, multiple double을 사용하여 가족 내에서의 소외감, 오빠에 대한 애정 갈구, 자신감 결여 및 어린애 같은 행동들에 대한 탐색, 감정표현을 주로 하였다.

사례 7 : 13회 참가

빈의자기법의 주인공으로 1회 참석, 보조자아로 10회 참석함, 이모에 대한 강한 애착 및 독점욕, 상실감 등에 대한 감정표현이 이루어지며 이성관계나 대인관계에서 끝없는 보살핌을 받으려는 태도, 유아적 의존성, 자기도취적 태도 등을 보였고 자신의 문제로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감정표현을 하였다.

사례 8 : 10회 참가

빈의자기법의 주인공으로 1회 참석, 보조자아로는

7회 참석하였다. 가족내 갈등, 부모에 대한 양가감정 표현 및 자신을 어린애 취급하는 것에 대한 불만, 자신의 주체감에 대한 문제를 나타냈다.

사례 9 : 10회 참가

빈의자기법의 주인공으로 1회 참석, 보조자아로는 7회 참석하였다. 가족 내 갈등, 부모에 대한 양가감정 표현 및 자신을 어린애 취급하는 것에 대한 불만, 자신의 주체감에 대한 문제를 나타냈다.

사례 10 : 6회 참가

보조자아로 4회 참석하였다. 주인공으로 빈의자기법을 사용하고 독백에서 나는 아무것도 자신이 없다는 자신에 대한 무력감, 열등의식, 현실에 대한 불만을 토론했었다.

사례 11 : 6회 참가

빈의자기법의 주인공으로 1회 참석하고 보조자아로만 4회 참여하여 언니, 동생간의 경쟁관계를 나타내는 장면에서 공격적인 행위를 하였다. 형제간의 갈등을 보인 보조자아역할로써 공격적인 면을 보였다.

2) 사례결과 종합평가

사회극의 표출내용을 정리한 결과 사회극에서는 부모로부터 의존-독립욕구 사이에 갈등이 대두되며 자기 주장이 생기고 주체성에 대한 고민 등이 대두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변화는 사례 1, 2, 4, 5, 7 및 9에서 볼 수 있었다. 사례 2, 10과 11에서는 사회극후에 갈등이 좀더 구체화되었으며, 자신의 불안 및 감정을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수용할 수 있는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사회극 총 11 사례중 대부분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다음의 두 사례를 보면 사례 5에서는 사회극을 시작할 때에 자발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긍정적으로 변화된 경우이고 사례 6은 사회극 시작 시에 자발성이 상실된 강압적 기법을 사용하여 저항을 보인 경우이다.

사회극에 주인공으로 2번 올라왔던 사례 5의 경우 사회극의 내용은 극심한 형제간의 경쟁을 주로 나타내었다. 즉 동생에 대한 살인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노, 질투의 감정이 표출되었다. 2회 사회극에서는

동생과의 심한 갈등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동생의 출생 장면에서부터 시작하였는데, 동생이 출생하는 소리를 옆방에서 들으며 어머니가 동생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불안을 나타냈으며, 이후 가정 내에서 주인공이 소외되고 아버지의 관심과 편애가 동생에게만 쏟아지는 데에 대한 질투,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은 양가감정과 이로 인한 어릴 때부터의 자신의 문제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되었다. 사례 6의 경우 부모가 자녀를 거부, 편애하는 원인으로 Silverman(1935)의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자녀의 거부 원인은 부모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않고 실망의 씨앗이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즉 부모의 무관심, 거부의 양육태도는 자녀들에게 애정의 결핍을 느끼게 하고 따라서 부모의 애정을 갈구하는데 이는 Levy(1937)의 연구결과 애정갈구가 일어난다고 한 것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극 실시 후에 죄책감 및 자신의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신의 내면 세계의 폭로에 대한 불안이 관찰될 수 있었고, 사회극이 끝난 후 자유토론에서 자신이 왜 그렇게까지 동생을 미워하고, 질투하였는가를 알았으며, 그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원인을 알고난 후에 실제 생활에서 동생과의 관계가 좀더 편해졌으며, 동생과 싸운 후에는 전보다 쉽게 화해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안 후에 좀더 적절한 방어기제를 사용함으로써 현실의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례 6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주인공으로 참석하지 않았고, 주위를 맴도는 형태로 타의에 의한 강압적인 방법으로 주인공이 되어 무대에 올라와 자신을 표현하는데 강한 저항을 보였다. 그래서 다중자아(multiple-double)의 기법을 사용하여 주인공의 감정을 이끌어 냈다. 즉 주인공이 극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자발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가정 내에서의 소외감 및 오빠에 대한 애정갈구 등의 문제들이 표출되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자신의 내면적 분노를 조절 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불안 및 자신에 대한 징벌적 태도 등이 후에 나타났다.

이는 모레노가 지적했듯이 자발성(spontaneity)이 없이 준비 안된 상태에서 강요에 의해 사회극을 할

경우 의식화되는 갈등,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에게 불안을 가중시켜 현실적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는 주인공이 카타르시스단계에 들어 가기 전에 저항이 나타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또 사회극에 나타난 내용들은 부모나 형제 가족간의 갈등이 많았는데 이는 김유광(1987), 홍기선(1984)의 연구와 같은 내용으로 정상집단이나 환자들이나 개인의 문제행동이나 갈등은 가정내의 원인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개인의 문제가 구체화되고 새로운 자기인식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자기를 확신하고 자신의 문제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내부의 갈등이나 억압된 충동을 감소시키고 그 때문에 허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극은 집단의 역할을 명료화시키면서 일개인의 자발성도 활발하게 해주고 상호간에 화해를 가져오게 하는 원천이 된다.

지금까지의 연구내용은 청소년이 사회극에 참여하여 부모로부터의 의존과 독립 그리고 권위에 대한 갈등등의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함으로써 집단간의 상호관심과 동료애를 촉진시키며 사회극은 총체적인 자아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모레노, 1972). 사회극은 그 이외에 정서표현, 자기수용성, 사회성, 자발성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김혜남, 1986)한 것과,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므로써 사회극이 치료에 도움을 주는 집단정신치료법이 된다고(박진익 등, 1989)한 연구와 같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개인의 자아인식 및 책임감을 증진시켜 주고 대인관계에 대한 자율성과 자기 주장 등의 확대와 타인에 대한 인식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배우게 하는 우수한 종합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이은순, 1990)한 내용과 자기이해에 도움이 됐다고한 Bloch and Reibstein(1980)와 Kellermann(1984)의 연구와 일치한다.

2. 사회극 실시 전후의 자아, 타인에 대한 변화

〈표 1〉에서 나타난 결과에서 보면 AO에 대하여 대인관계가 좋아진 경우로 나타난 사례는 1, 2, 7, 9와 10에서 나타났고 별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경우 3과 4번 사례였고, 대인관계에서 부담을 보인 경우는 5, 6, 8과 11번 사례로 나타났다. AS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해 인식이 된 것으로 보인 경우 사례 1, 2, 3, 5, 6, 7, 8과 10에서 나타났고, 자신에 대해 불안을 보인 경우는 사례 4와 9였고, 사례 11은 별 차이가 없었다.

사회극 실시 전후 AO와 AS검사를 하고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가 보기 위하여 집단별로 나타난 t-검증에서 AO에 대한 결과는 〈표 2〉에서와 같이 2.80, $P < 0.05$ 로 나타나 대인관계에서 좋아진 결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고, AS에 대한 결과는 -6.47, $P < 0.001$ 로 유의있는 결과를 보여 사회극 실시 전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하여 사회극을 실시한 후 자신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간의 t-검증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은 사회극을 하고 난 후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타인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3. 자신에 대한 통찰력

〈표 3〉는 비디오를 보고 난 후에 느낌에 대한 연구결과이다. 비디오를 학생들이 무대위에 올라서 있는 동안 비디오를 촬영한 것을 다시 보게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비디오를 본 후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다.

〈표 4〉은 비디오를 보고 나서의 느낌을 기록하게 한 것이었다. 항목의 내용은 사회극이 어느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항목을 구성하였다. 또 나의 문제점은 다른 사람과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표 3〉에 비디오를 보고 난 후 '자신의 문제 알게

〈표 1〉 사회극실시 전후의 'AO' 'AS'의 변화

	AO			AS				AO			AS		
	전	후	차	전	후	차		전	후	차	전	후	차
사례 1	5	7	-2	9	2	+7	사례 7	9	10	-1	14	13	+1
사례 2	8	10	-2	10	5	+5	사례 8	14	11	+3	10	6	+4
사례 3	11	11	0	4	3	+1	사례 9	11	13	-2	7	9	-2
사례 4	11	11	0	11	12	-1	사례 10	11	13	-2	9	12	+3
사례 5	15	5	+5	10	8	+2	사례 11	13	8	+5	7	7	0
사례 6	13	11	+2	4	3	+2							

〈표 2〉 사회극실시 전후 집단간의 변화

	사례수	Mean	S.D.	t-value	p
AO 전	11	2.45	1.51	*2.80	P< .05
후	11	1.45	1.21		
AS 전	11	2.00	1.67	***-6.47	P< .001
후	11	8.55	3.35		

〈표 3〉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

나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2
나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되었다	7
나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2
나 자신이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	0
내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0

* 위설문내용은 이미정(1986)이 사용한 것을 인용함

된 경우'가 9명 경우이고, '알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가 2명의 경우로 이는 사례 11 과 사례 9인데, 사례11은 자신의 문제가 표면화한 것에 불안하였다 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사료된다.

〈표 4〉의 결과는 자기이해, 타인이해와, 보편성 지침에서는 긍정적 반응이었지만 카타르시스에서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다.

객관적으로 자기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타인을 보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진실되게

대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례 3으로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경우이다. 보편성으로 본 자기 문제가 나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에서 대부분 긍정을 하였는데, 사례 7의 경우만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사례 7의 경우는 자기에 경향이 강한 사람으로서 자기문제는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이를 뒷바침 해주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한다.

카타르시스는 정신치료를 하여 카타르시스효과(김유광, 1987; 홍기선, 1990; Yalom, Tinkenberg and Guilula, 1970; Weiner, 1974; Sherry & Hurley, 1976; Marcovitz & Smith, 1983; Kellermann, 1984)가 있었으나, 본 연구결과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극을 하기 전에 불안했다」, 「다음 무대에 다시 오르고 싶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싶다」, 「솔직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잘 표현한 것 같지 않다」, 「노출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된다」 등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고 한 사람이 6명으로 나타나 자신의 문제를 타인 앞에 내놓기가 상당한 어려움으로 보여져 정화가 되지않았다고 본다.

사회극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제가 막연히 피상적인 것이었는데 자신의 문제로 사회극을 하고 난 후에 자신의 문제를 재인식하게 되고 주체성에 대한 고민, 불안, 무력감이 노출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자아관한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도 한 경우가 있고 자기이해와 타인을 이해할 수 있지만 카타르시스가 되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4〉 사회극실시후 학생들의 주관적인 평가

	내 용	그렇다	아니다
자기이해	사회극에서 자기 역할을 했을때 자기자신을 볼 수 있었다	11	0
	자신의 모습이 과장되게 느껴짐.	1	10
	VIDEO를 보면서 나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었다	9	2
타인이해	사회극에서 자기 역할을 했을때 타인을 이해 할 수 있었다.	10	1
지 침	사회극을 마친후에는 모든 것을 진실 되게 대하고 싶다.	10	1
보 편 성	내 문제가 나혼자 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10	1
카타르시스	1. 사회극을 하기전에 불안했다.	9	2
	2. 다음에 또 기회가 온다면 무대에 다시 오르고 싶다.	10	1
	3. 나 자신이 다음에는 무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 하고 싶다.	11	
	4.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 후회가 된다.	8	2
	* 잘한것 같다.	1	
	5. 사회극에서 내자신을 잘 표현했던 것 같다.	1	10
	6. 나의 역할이 기분이 후련했다.	2	9
	7. 내 자신이 너무 노출된 것에 대해 후회가 된다.	1	10
8. 사회극중의 나의 모습은 진정한 나의 모습 이었다.	6	5	

자기를 아는데 불안감을 엿볼 수도 있었다. 사회극에서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한 것은 표현이 어려웠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1회의 사회극의 효과라고 생각이 된다. 무대에 오르는 것과, 집단모임에서 자신을 노출시키기가 어려웠고 감독자의 역량과 학생들 간의 정서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은 기회만 온다면 무대에 다시 오르

고 싶어하여 사회극은 회를 거듭하면 할수록 좋은 결과가 나올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사회극의 중요한 요소인 『만남』과 『지금여기에서(Here and now)』의 상황을 뒷받침 해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청년기 갈등은 성장기 인격형성의 기초가 되는 심리적인 환경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형제간의 갈등이 그 원인이 된다.

이 연구는 청년기 자녀의 갈등을 규명하기 위해서 사회극을 통하여 부모, 자녀간의 갈등을 형제자매간의 경쟁심 편애 등으로 인한 갈등의 원인을 알아보고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그 갈등들을 처리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사회극은 자발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문제를 자유롭게 표출하고 집단내의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므로써 자기 및 타인의 진실을 탐구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과 2학년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총 14회 사회극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나이 분포가 21~35세가 11명, 21~23세가 8명, 3명은 27, 34, 35세로 후기 청소년기 학생과 청장년기에 있는 여학생이었다.

청년들의 갈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방법으로 MMPI검사와 설문조사를 하였다. 사회극을 실시할 때의 과정을 비디오 촬영을 하여 사회극 실시후 비디오를 다시 보고 난 후 그 느낌을 설문조사 하였다.

사회극에 표출된 내용은 부모와 형제 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기 갈등은 어렸을 때 가정 내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형제간의 갈등이 문제가 됨을 볼 수 있었다.

사회극은 대본없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표출하는 것인데 사회극을 통하여 자기이해와, 타인이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극에 참여한 학생과 연출가 관계는 사회극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만남의 기법』, 『지금 여기에서』라는 면에서 볼 때 『만남의 기법』 관계에서 연출가와 집단간의 “끈”이 형성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1) 청년기 자녀의 갈등은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비롯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사회극은 사용범위가 다양하여 대학교에서 가족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자녀들이 겪는 갈등의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가정환경이 인격발달에 가정 중요하고 부모양육태도 자체가 사회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앞으로 사회극을 청년들의 문제해결 방법으로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집단외에 조절집단과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정신(1987). 부모와 대학생자녀의 가치관과 가치전달연구. 대한가정학회 25(3), 95-106.
- 2) 김광일·윤호택·김이영·김명정(1983). 고등학생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1. 정신건강연구 1.
- 3) 김양희(1993). 한국가족의 갈등연구. 중앙대학교 출판부.
- 4) 김유광(1986). 싸이코 드라마의 준비작업. 임상예술, Vol 2, 37-46.
- 5) 김유광(1987). 정신과 환자에 대한 정신치료극의 치료적 효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사학위 논문.
- 6) 김진홍·김현준(1991). 입원 및 외래 집단정신치료에서의 치유인자들에 대한 비교 연구. 신경정신의학 30(1), 178-187.
- 7) 김해열·김혜남·김유광(1991). 대학생 집단에 적용된 정신 치료극의 효과. 신경정신의학.
- 8) 김희경·이정숙(1990). 문제야 임상심리학. 교문사.
- 9) 김혜남(1990). 정신치료극의 치료효과에 대하여. 임상예술 5.
- 10) 박성연(1986). 자녀에 대한 가치관 - 어머니와 딸 두세대간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24(4), 189-197.
- 11) 박종원(1982). 청소년 정신장애 환자의 생활사건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1.
- 12) 박진익·김혜남·김유광(1989). 입원한 청소년

- 정신분열병 환자에 적용된 정신치료극의 효과. 신경정신의학 28(1), 106-112.
- 13) 서해수 · 이중훈 · 정성덕(1985). 정보중적척도에 의한 대학생의 정신건강 평가. 영남의과대학 학술지 2(1), 149-159.
- 14) 성금영(1983). 정신과 입원환자군과 대학생군에 적용된 심리극의 효과.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 15) 십대들의 족지(1994). 십대들의 족지모음 1,2,3,4.
- 16) 이근후 · 임계원역(1987). 싸이코 드라마. 하나의 학사.
- 17) 이길홍 · 심현수 · 나철 · 민병근(1983). 청소년 정신장애에 관한 정신의학적 연구. 한국의과학 15.
- 18) 이은순 · 강순화(1990). 대학에서의 심리극 집단 상담. 임상예술 5.
- 19) 이인숙(1987).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신증적 신경증적 경향과의 관계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0) 이정숙(1995). 청년의 자아상에 적용된 사회극의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151-164.
- 21) 이중훈 · 박형배 · 정성덕(1985). 신경증적 척도에 의한 대학생의 정신건강 평가. 영남의과대학 학술지 2(1), 135-147.
- 22) 이충순 · 유계준 · 김명익(1984). 단기 집단 정신치료의 치유인자. 신경정신의학 23(2), 183-188.
- 23) 최규련(1996). 가족학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 문제와 대책. 한국가정학회지 34(1), 147-159.
- 24) 최형관 · 홍강익(1982). 정신병동에 입원한 중학생 환자의 임상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21.
- 25) 한광희(1986).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6) 홍기선(1991). 사회극의 이론과 실제. 임상예술 5.
- 27) Blatner HA.(1973). Acting in: Practical application of psychodramatic method. New York: Springer.
- 28) Bloch S. & Reibstein J.(1980). Perceptions by patients and therapists of therapeutic factors in group psychotherapy. *British.J. of Psychiatry* 137, 274-278.
- 29) Kellermann P.(1984). Participant's perception of therapeutic factors in psychodrama, *J. of Group Psychotherapy, Psychodrama & Sociometry* 38, 123-132.
- 30) Levy, D.M.(1937). Studies in sibling rivalry.
- 31) Marcovitz R.J. and Smith J.E.(1983). Patients perception of curative factors in short-term group psychotherapy. *International J. of Group Psychotherapy* 33, 21-39.
- 32) Moreno, J.L.(1969,1972). *Psychodrama*, (K vol. 1.2.3). Beacon. House I.N.C.
- 33) Sherry P, Hurley J.(1976). Curative factors in psychotherapy and growth group. *J. of Clinical Psychology* 32:835-837.
- 34) Silverman, B.(1935). The behavior of children from broken homes.
- 35) Weiner MF.(1974). Genetic versus inter personal insight. *International J. of Group Psychotherapy* 24, 230-237.
- 36) Yalom I, Tinklenberg J.(1970). Curative factors in group therapy. In I Yalom,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New York : Basic Books.